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날큰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날큰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날큰하다

완성된 이름

날큰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날큰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물러서 조금씩 늘어지게 되다.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20세기	현재
날큰후다	-	-	-
날큰하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물러서 조금씩 늘어지게 되다.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날큰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물러서 조금씩 늘어지게 되다.

☞ 날큰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날큰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날큰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날큰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날큰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날큰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날큰후다
16세기
- 날큰하다



날큰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날큰하다’의 옛말은 ‘날큰하다’로 16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날큰하다’는 어근 ‘날큰’에 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날큰하다’의 어근 ‘날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날큰하-’는 16세기 나타나다가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부터는 ‘날큰하-’로 변화하였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날큰하-’는 20세기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날큰하다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6세기 놀큰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놀큰후-

출처 1576 신증유합 하:38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爾 茶 놀큰후 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날큰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날큰하-

출처 1944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2

66 문헌 용례

날큰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7 표준조선말사전

용례 03

66 문헌 용례

날큰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4

66 문헌 용례

날큰하다.

현대어 풀이

날큰하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날큰하다에 관한 주석

16세기의 《신증유합》에서는 ‘날큰할 날’로 한자의 훈과 음을 달면서 그 바로 앞에 ‘나른할 날(茶)’자를 더해 두었다. ‘날큰’의 ‘날’이 한자어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현대 한국어의 ‘나른’과도 소리가 비슷하다.##‘날큰’이 작은 말이라면 그 큰말인 ‘날큰’은 19세기에 ‘날큰날큰[緩緩]’<1880 한불자전 283>으로도 보이고, 20세기에는 ‘날큰하다’로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다’, ‘나른하게 늘어져 있다’ 정도를 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 거름 좀 빨리 짓기로工夫합시다. 좀 날큰하지 말아 주세요

날큰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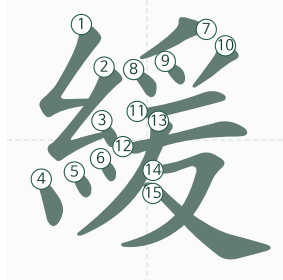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날큰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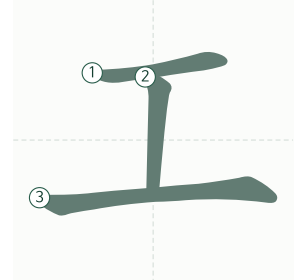
뜻·음 느릴 완
총 15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緩/

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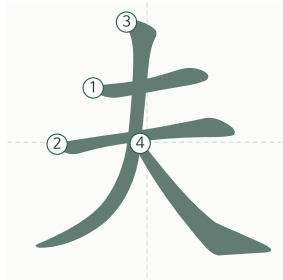
뜻·음 장인 공
총 3획 · 부수 工



hanja.wordrow.kr/한자/工/

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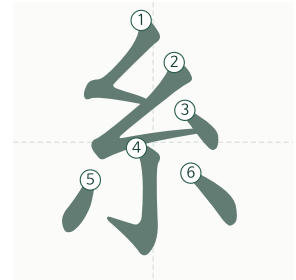
뜻·음 지아비 부
총 4획 · 부수 大



hanja.wordrow.kr/한자/夫/

糸

뜻·음 실 사 / 가는실 맥
총 6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糸/